

생태환경 개선...철새와 공존하는 흑산공항 만든다

농경지에 조·수수 심어 먹이 제공
미세먼지 대응 나무 22만그루 심어
사계절 꽃피는 '플로피아' 조성
"환경보존 노력 심의때 반영돼야"



신안군이 지역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미세먼지·황사 감축효과가 우수한 편백나무·애기동백나무 등 40여종 22만주를 식재했다. <신안군 제공>

흑산공항 주변 생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농경지에 조·수수 등을 파종해 철새 먹이로 공급하고, 대체 보금자리를 마련해준다. 사계절 꽃피는 바다위 정원(플로피아 조성)을 만들고, 미세먼지·황사에 대응해 나무숲을 조성한다.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흑산공항'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흑산공항은 지난 2018년 9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중단된 이후, 심의과정에서 제기됐던 경제·환경·안전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다. 재보안 요구서는 올해 상반기 내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환경청은 봄·여름·가을·겨울, 수달 등 흑산지역 동·식물 생태환경과 식생 현황, 보전등급 재산정 등 용역을 통해 조사 중이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인증항공기 제작사와 함께 활주로 길이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입예정 기종은 현재 세계 96개 항공사가 295대를 운항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쟁점이 됐던 철새 보호에 대해 신안군은 지난 2017년 지역주민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맺고 매년 약 3ha 농경지에 조·수수 등을 파종, 철새먹이로 제공하고 있다.

또 공항 건설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과는 별개로 신안군은 자체적으로 철새 보금자리 사업 대상지 12곳을 선정해 우선 올해 시범사업 2곳의 부지 매입과 초지·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지리적으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황사 감축 우수종인 편백나무·애기동백나무 등 40여종 22만주를 식재했다. 여기에 조경적 가치가 뛰어난 수목들 전국에서 기증받아 심고 있다.

이같은 성공원화 사업은 신안군이 직영으로 추진해 예산 절감은 물론 계절적 적기 나무식재를 통한 생존율 99%이상으로 높이는 1석2조 효과를 거

두고 있다. 늘 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 조성을 위해 사계절 꽃피는 바다위 정원(플로피아 조성) 사업도 펴고 있다. 청정 다도해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섬의 가치를 극대화해 사계절 꽃·나무를 주제로 매월 꽃정원 축제를 열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영농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들녘에 방치된 폐비닐 및 농약빈병 등을 시중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청결한 농촌, 자원 재활용, 농업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신안 전 지역이 다도해생물권 보전지역 지정(2009), 신안갯벌 세계문화유산 등재(2020), 친환경세계 확대 보급(2019), 습지보 호구역 확대(2018)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신안군 관계자는 "철새 보호와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이 전국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철새와 인간이 공존하는 흑산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흑산공항이 건립되면 육로 및 선박으로 총 6~7시간이 소요되던 수도권에서 흑산도까지의 이동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공사 중인 울릉공항보다 건설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든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울 탄도·감방산·봉수산 등 17곳



무안 승달산 국가지점번호판.

무안군은 올해 탄도, 감방산, 봉수산, 상곡봉 등 17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신규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은 건물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 등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번호판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치된 번호판의 번호를 119에 알리면 신속하게 사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무안군은 올해 전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돼 관광활성화가 기대되는 망운면 탄도 등 17곳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승달산, 해지면 해안가 등에 191점의 지점번호판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최근 등산, 자전거, 트레킹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야외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때 빠른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신안농협 3000여 농가에 흑마늘진액 전달

신안농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조합원 등 3000여 농가에 지역 특산물인 흑마늘 진액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마늘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농업인의 면역력도 증진시킨다는 취지다.



신안 흑마늘 진액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손꼽힐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하다. 마늘에 함유된 다량의 '알리신' 성분은 체내에서 강력한 살균과 항균 작용을 한다. 특히 마늘을 발효시키면 효능이 강해져 피로회복에서 면역력 강화, 항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안좌·팔금지역 농업인과 조합원을 비롯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신안농협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소득 작물 발굴과 시범포단지 육성,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신안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마늘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특산물인 흑마늘 진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농협 발전에는 조합원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며 "농업인·조합원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2021년까지 2년 연장

우수 송아지 생산 등 3개 신규사업 추진
전국 최초로 한우산업특구에 지정된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가 오는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함평군은 이번 연장에 따라 ▲함평천지한우 혈통 보존 및 우수 송아지 생산사업 ▲한우 사육 선도 농가 육성사업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등 총 3개 사업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도 판매 유통망을 확대하고 지역별 직거래장터를 정기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의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우량 암소핵군(우량밀

소) 육성 ▲명품 브랜드화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홍보·마케팅 강화 ▲이벤트 및 관광개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평천지한우를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축산브랜드로 육성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은 TMR(완전배합사료) 사료공장을 통해 고급육 한우 육성에 특화된 맞춤형 사료(셀레늄 첨가로 노화억제·면역강화·항암 작용)를 공급하면서 전국 평균(86%)을 웃도는 90%의 한우고기 고급육 등급 출현율을 기록하고 있다. 혈통보존 장려금 지원을 통한 우수 한우개량집단 확보, HACCP 통합인증 획득, 12년 연속 소비자 시민모임이 선정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선정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목포무안신안축협, 코로나 위로금 무안군에 3000만원 전달

목포무안신안축협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부금 3000만원을 무안군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이 기부금은 마스크 2만매를 구입하는데 쓰인다. 문만식 조합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고 말했다. 목포무안신안축협은 무안군과 함께 지난 1일부터 4일 간격으로 지역사회 공동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광군 이모빌리티 인력 양성

다음달 수요조사후 교육생 모집

영광군은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4차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에 취업시켜 주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업 수요에 맞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인력 공급과 채용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는 의미다. 영광군은 기업 맞춤형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별 채용 계획 및 희망 분야를 사전 조사한 후 3개월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론교육, 기능교육)을 운영한 뒤 기업 취업과 연계한다. 교육생 모집은 4월 예정이며, 대상자는 영광군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 중 미취업자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영광지역 고용난을 해소하고 이모빌리티산업 기반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이모빌리티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